유익만 추구하시던 공생애 계승할 몸

(고린도전서 6:12~20)

12.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13.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14.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15.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16.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17.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18.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19.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20.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유익만 추구하시던 공생애 계승할 몸>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유익만 추구하시던 공생애 계승할 몸”

사도 바울은 음행에 대해 교훈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복음의 원리를 제공해줍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목은 유익만 추구하시던 예수님의 공생애를 계승할 몸으로 음행을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겉으로 보면 희생의 과정처럼 보입니다만 철저하게 이익 추구의 과정이었습니다. 사람의 모든 행위가 이익을

추구한다는 면에서 예수님과 똑같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이익의 기준과 이익 추구의 결과입니다. 사람은 이익을 위해 움직이지만 원하는 만큼의 이익이 생겨나지 않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또 사람들의 모든 행위는 자기가 생각하는 이익을 추구합니다. 그럴 때 추구하는 이익이 다른 사람에게 손해일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몸을 움직이는 행위를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공통점이라면 이익의 기준과 이익 추구의 결과에서 예수님과 사람들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제하에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바로 “몸”입니다. 본문에서 “몸”이라는 단어가 반복하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몸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소마(σωμα)는 고깃덩어리로서의 육체(flesh)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차의 몸체, 회사의 조직체, 국가의 조직체와 같은 몸(body)으로써의 외형을 뜻합니다. 이와 같은 용례가 이후에도 등장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을 보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몸은 단순히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한 뒤에 하늘나라에서 입게 될 신령한 몸을 의미합니다. 즉, 육의 몸이란 인격이 이 세상에 실존하기 위하여 입는 껍데기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령한 몸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이란 오감을 가지고 있는 육체와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고 의지하는 기능의 복합체입니다. 이러한 육체는 인격의 껍데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문 12절 전반부를 보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고 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라고 함은 “나는 모든 것을 해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생겨난 격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자유를 뜻하는 이러한 격언이 생기게 되었는지 본래의 의미를 살펴봅니다.
믿음의 핵심은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몸으로 만나는 이 세상에 대해 죽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으면 이 세상은 내 앞에서 백지가 됩니다. 마치 하얗게 눈이 내린 들판에서는 어디로 가도 길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서 이 세상에 대해 죽었다면 몸이 살아있는 이 세상은 마치 백지와 같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백지 위에는 몸이라는 붓으로 무엇이든지 그려갈 수 있게 됩니다. 죽었기에 몸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내 몸은 여전히 땅

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몸을 살려두신 이유는 몸으로 무엇인가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백지처럼 된 세상에 대해 몸으로 무엇을 그려내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 행위의 기준을 "유익"이라는 말로 간단하게 정의해줍니다. 모든 일을 할 수 있지만 유익이 되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유익이 되는 행위가 아니라면 그것은 행위가 아니라 단순한 몸짓이고 동작일 뿐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참 유익을 가져오지 못하는 모든 행위는 죄악이고 범죄입니다. 유익이란 곧 이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생각하는 이익의 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행위는 이익을 좇아가는데 그리스도인의 행동 하나하나는 참 이익이 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아무 이익이 없는 행위는 할 필요가 없기에 이익을 겨냥하지 않는 행위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몸을 움직여서 얻을 수 있는 진짜 유익이란 무엇일까요? 진짜 유익이 무엇인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십자가 복음을 중심으로 보았던 진리에 기반을 두고 생각해보면 됩니다. 진짜 유익은 돈도 승진도 건강도 아닙니다. 이 세상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형통도 아닙니다. 땅에서 행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진짜 유익이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로부터 진짜 손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서 이루고 싶으신 뜻이 소실되어 버리는 것이야 말로 진짜 손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이러하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갖고 계신 뜻을 하나도 소실시키지 않고 다 이루는 것이 가장 큰 이익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이익은 없습니다.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하면 부모님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문제는 전지전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지 못하고 오히려 무능합니다. 행여 세상적으로 유능하다고 해도 이것은 더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또 전지하지 못하여 부모의 사랑이 자녀의 미래에 좋은 영향을 끼칠지 나쁜 영향을 끼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부모의 사랑 때문에 자식이 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심으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기에 나를 향하신 뜻은 항상 옳습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 더 큰 이익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염두에 두고 이익을 생각해보자면 예수님은 돈이나 승진이나 건강이나 형통을 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것은 벌어도 이익이 아니며 잃어도 손해가 아닙니다. 돈이 없어짐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돈이 없어짐이 이익입니다. 건강을 잃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건강을 잃는 것이 이익입니다. 반대로 돈이 들어옴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돈이 들어와서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익입니다. 이로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왜 유익만 추구하시던 기간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얼핏 희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익을 남기는 일에 천재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유익 재벌이셨습니다. 사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을 따라 오직 하나님께서 땅을 향해 갖고 계신 뜻을 성취하는 일에만 올인 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신 인류구원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엄청나고도 결정적인 우주적 이익 사건이었습니다. 몸을 십자가의 고통 속에 던지셨기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죽음이 희생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희생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땅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셨습니다. 그럼으로써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이익의 재벌이 되신 것입니다. 12절의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라는 말씀도 이러한 전제를 통해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12절 하반부를 보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고 하였습니다. 몸을 움직임으로써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익을 위해서는 절대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마음은 반드시 이 땅의 어떤 것에도 얽매임이 없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라고 말하면서도 이 땅에 얽매여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땅에 얽매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이루고 싶어 하시는 뜻은 무조건 소실되어 버립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행위를 하면 할수록 손해가 됩니다. 달걀이 땅에 떨어져 깨져버리듯이 아버지의 뜻이 땅에 떨어져 버려지는 손해를 계속해서 만들게 됩니다. 따라서 땅에서 진짜 이익을 위해서는 마음은 반드시 이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하늘로 올라가야만 하고 하늘에서의 이익을 챙겨야만 합니다.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의 이익을 챙길 수 없다면 몸의 행위로 땅의 이익을 챙길 수도 없습니다.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은 마음이 이 세상을 떠난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을 떠난 마음은 허공에서 노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올라가서 유일하게 마음의 이익이 될 수 있는 하나님 자신을 챙기게 됩니다. 이로부터 12절 하반부의 말씀을 풀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지만 이 땅에 매이지 않는다. 내 마음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만을 내 이익으로 챙길 것이다. 그럴

때 비로소 이 땅에서도 진정한 이익을 챙길 수 있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고 마음이 얽매이지 않으면 이 세상은 내 앞에서 백지가 됩니다. 백지 같은 인생에서 내 몸으로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반드시 유익이 생겨야만 합니다. 얽매임이 없다는 것은 마음이 이 세상에서 떨어져 나오는 자유입니다. 또 이 세상에서 마음의 손을 완전히 떼어내는 자유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라는 말씀의 속뜻은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말합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입니다. 이것은 마음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마음이 떠났는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일까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 세상에서 몸을 움직여야만 하는 중요한 일과 진짜 필요한 일은 성령께서 하시게 됩니다. 19~20절을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였습니다. 값으로 사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당신의 몸을 제공해주셨습니다. 내 마음이 내 몸을 떠나는 대신에 예수님의 몸에 붙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하셔서 내 마음과 내 몸을 사신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몸을 떠났으니 남은 몸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오감을 가지고 있는 육체와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고 의지하는 기능으로 된 몸을 이제 주님께서 가지십니다.

이와 관련하여 13절 비유를 보면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비유에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복합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라고 한 부분은 자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배가 고프면 자연스럽게 음식을 먹게 됩니다. 식사에 대한 생리적 욕구가 음식을 먹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음행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몸에서 성적인 욕구가 생길 때에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는 것처럼 해소하려고 합니다. 결국 상대를

가리지 않는 음행은 이러한 욕구에 얽매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하면서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고 하였습니다. 음식에 대한 욕구가 생기는 배나 성적인 욕구가 생기는 몸은 결국에는 모두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영원히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없어질 것들에 관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가 고파서 음식을 찾고 먹는 일에 마음은 관여할 수 없습니다. 마음은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얽매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음식과 배의 관계로 예를 들며 자유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란 생리적인 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몸을 움직이는 일에 마음이 가담하는 상태가 아닙니다. 마음은 얽매임이 없어야 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마음이 세상을 떠날 때 이루어집니다. 이 세상의 어떤 일에도 마음이 매이지 않아야 진정한 자유입니다. 배고플 때 음식을 욕구하는 일에 마음이 가담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성적인 욕구가 생겼을 때 이것을 해소하는 일에 마음이 가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유가 아니라 얽매임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마음이 몸에서 떨어져 나가 얽매임이 없는 상태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나머지 부분을 보면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마음이 제공받은 예수님의 몸을 붙잡고 하늘로 가면 몸이 남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남은 몸을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쉽도록 음란에 대한 부분을 빼고 요약해보면 "…몸은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가 됩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라는 앞부분의 말씀과 대칭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유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폐하실 것을 왜 마음으로 신경을 쓰느냐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폐하시고 없애버리실 순간적이고 일시적으로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마음이 신경을 쓰는 것은 얽매임이고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는 말속에 들어있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폐하시고 버릴 것에 대하여 신경 쓰지 않고 얽매이지 않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얽매이지 않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으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내 몸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을 붙잡을 때 얽매이지 않고 하늘로 갈 수 있게 됩니다. "…몸은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는 말씀의 의미는 배고플 때 음식을 먹고 싶어 하듯이 나의 몸을 예수님께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비유입니다. 내 몸이 예수님의 바람을 채워드리는 음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몸을 먹고 싶어 하시고 굶주려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내 몸을 먹고 싶어 하시듯이 사용하시기를 바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가신 뒤에도 당신의 공생애가 이어져 나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나에게 값으로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은 내 몸 대신에 예수님의 몸을 붙잡고 하늘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올라가신 상태에서 이 땅에 남은 몸에서 예수님의 공생애 때와 같은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땅에서 이루고 싶으신 뜻을 이루셨던 기간이었습니다. 지금도 아버지의 뜻은 준비되어있습니다. 이제 그 뜻을 이룰 몸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기에 이제 그 몸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께 몸을 제공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몸을 예수님께 제공해드리면 예수님의 공생애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예수님의 마음은 아버지가 계신 하늘로 올라가셨고, 아버지 뜻의 복사판 영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몸을 움직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서도 똑같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해도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자유입니다. 이 자유는 얽매이지 않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해도 된다는 것은 내 마음이 세상을 떠나는 자유를 말합니다. 세상에서 어떤 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입니다. 동시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성령의 자유입니다.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방해받음 없이 무엇이든지 해내 가실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일이 나타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우리의 몸을 가지시기를 원하십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라고 하였고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내 몸은 주님을 위하여 있고 주님은 내 몸을 위하여 계신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간절히 내 몸에 배고파하시는 이유는 나를 통해 당신의 공생애가 나타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정에 있을 때 공생

애가 계속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계속하시기 위해서는 마음에 얽매임이 없어야 합니다. 마음이 이 세상에 얽매이면 내 몸을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내 몸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뜻은 다 소실되어 버리고 손해만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내 마음에 제공해주셨습니다. 마음이 몸 대신에 예수님의 몸을 붙잡을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성령이 오셨던 것처럼 나의 몸에도 성령이 오셔서 움직여 가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나의 몸을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렇게 나를 통해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루어질 때 아버지의 뜻은 자유로워집니다. 반대로 나의 마음이 돈에 얽매이는 동안에는 육체와 지정의가 돈을 버는 일에 사용됩니다. 그럴 때 돈과 연관해서 아버지께서 갖고 계신 뜻은 달걀이 땅에 떨어져 깨지는 것처럼 다 소실됩니다. 그러한 삶 자체가 손해에 손해를 이어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얽매임이 없도록 당신의 몸을 내 마음에 제공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의 마음에 자유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해야 될 의무감과 부담감을 가질 필요가 없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하늘로 올라간 마음은 진짜 있음이시고 진짜 좋음이신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소망하게 됩니다. 그럴 때 공석이 된 내 몸을 주님께서 채택하시면 성령님께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그 아버지의 뜻 안에 어떤 일이 들어있을지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자유입니다. 몸은 이렇게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어져 나가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이 내 몸에 내려와 자유롭게 활동하실 수 있고 성령님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할 몸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이 세상에 얽매이는 동안에는 몸은 예수님께 드려질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음이 성적인 욕구에 얽매여서 음행을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8절을 보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주석가들은 이 내용을 해석하기 어려워하지만 실제로는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몸은 인격의 껍데기이자 인격이 입는 옷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인격의 핵심은 의식작용과 욕구작용이 일어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예수님의 몸을 붙잡고 하늘로 올라가면 땅에는 인격

의 껍데기인 몸이 남습니다. 이 몸에 대해 성령님이 오셔서 주체가 되어주실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해도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기에 무슨 일이든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마음이 인격의 껍데기인 몸을 옷으로 입고 죄를 범하는 상황을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둑이 옷을 입고 도둑질을 했다고 해서 옷에 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옷은 더럽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음행을 피하라고 한 이유입니다. 음행은 몸이라는 옷을 찢고 더럽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인격의 옷인 몸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계승하여 성령님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영역이고 아버지의 뜻이 보장되어야 하는 영역입니다. 음행을 피하라는 것은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자유롭게 활동하셔야 될 몸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이익을 챙겨야 합니다. 이를 위해 내 마음에 예수님이 지불하신 값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의 몸을 원한다. 그 대신 너의 마음은 너의 몸 대신 나의 몸을 가져라."는 의미에서 십자가에 몸을 던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가지면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이어갈 계승자의 몸에 성령을 보내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 기간을 통하여 이익 재벌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이익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나를 이익 부자로 만들어줄 몸을 예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익 부자가 되는 길은 마음이 예수님의 몸을 붙잡고 얽매이지 않음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마음이 무엇인가에 얽매임으로써 포기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가져야 될 몸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성찬식의 의미 또한 이와 상통합니다. 예수님의 몸이 내 몸이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음식과 배의 관계를 몸과 예수님의 관계에 비유하였습니다. 값으로 사셨다는 의미대로 마음으로 예수님의 몸을 먹으면 예수님께서는 내 몸을 먹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예수님께 먹힌 몸으로 이익만 챙기는 일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내 몸이 이렇게 요긴하고 이렇게 대단한 일을 위하여 준비되어 있는 줄을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아무쪼록 이 몸을 주님이 먹도록 내 마음은 세상의 얽매임을 끊고 내게 주신 예수님의 몸을 내 몸 삼아 하늘로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내 몸은 성령이 임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자유와 아버지의 뜻의 자유가 이 땅에서 마음껏 펼쳐지는 요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